

“아니야, 오빠.”

비르지니가 말을 되받길,

“그 사람 너무 무서워. 엄마가 이따금 하던 말을 떠올려 봐. 악인의 빵은 입 안 가득 자갈을 채운다.”

“그럼 어떻게 할까?”

폴이 말했다.

“여기 나무에 열린 열매는 죄다 못 먹는 것들뿐이야. 여기엔 네가 목을 축일만한 타마린드나 레몬도 없단 말이야.”

“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거야.”

비르지니가 답했어.

“신은 먹이를 찾는 작은 새들의 울음소리도 들어주시니까.”

비르지니가 말을 끝마치기 무섭게 두 사람은 근처 바위에서 샘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네. 둘은 그곳으로 달려갔고, 크리스탈보다 더 투명한 물로 갈증을 풀고 나서는, 물가에 자라난 물냉이 냇 줄기를 따서 먹었지. 두 아이가 좀 더 든든한 먹을거리를 찾을 수는 없을까 하고 이쪽저쪽을 둘러보고 있었을 때, 비르지니는 숲속 나무들 사이에서 어린 캐비지야자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네. 이 나무 꼭대기에 잎이 모이는 가운데서 피는 양배추는 먹기에 맛이 아주 좋지. 다만 그 나무줄기가 아무리 사람 다리보다 굵지는 않